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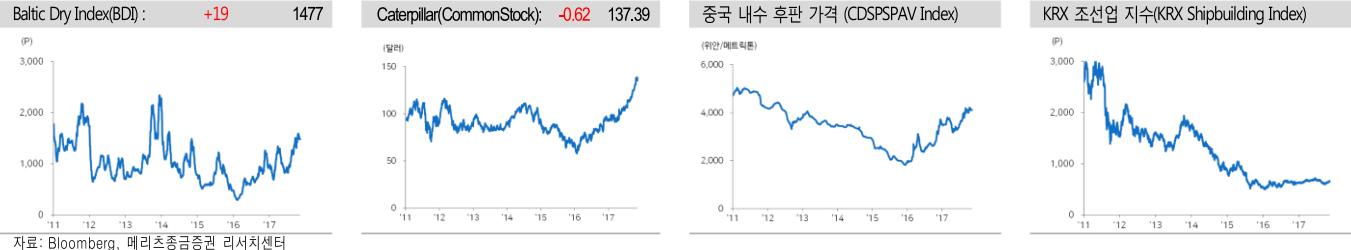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8,329.8	21.1	147,000	14	-3.0	-3.0	6.2	52.9	119.6	0.7	0.7	1.3	0.6
현대로보티스	6,425.1	20.0	394,500	3.8	-8.4	-10.2	N/A	4.3	4.9	0.8	0.7	19.4	15.8
현대알렉트릭	590.0	6.4	115,000	-1.7	-2.1	-15.3	N/A	5.6	3.8	0.5	0.5	9.5	13.1
현대건설기계	1,743.2	9.8	176,500	0.0	-6.4	7.7	N/A	5.5	4.2	0.7	0.6	13.1	15.8
삼성중공업	4,660.5	19.6	11,950	2.6	2.1	6.2	29.2	60.6	129.3	0.7	0.7	1.2	0.6
대우조선해양	1,764.5	3.0	16,800	-2.9	N/A	N/A	-62.5	1.0	9.4	0.4	0.4	63.6	4.9
현대미포조선	1,858.0	13.2	92,900	-1.9	-7.6	-12.4	38.2	9.1	31.5	0.8	0.7	8.9	2.4
한진중공업	396.1	4.6	3,735	-1.7	-1.1	-23.0	11.0	-11.6	84	0.4	0.4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283.4	32.7	52,100	0.6	-7.0	-0.2	-9.2	9.7	92	14	13	15.9	14.6
두산밥캣	3,458.6	24.4	34,500	1.0	-6.5	-3.5	-3.8	15.1	13.9	1.0	0.9	6.6	6.7
현대로템	1,581.0	28.3	18,600	1.1	4.8	1.9	2.5	35.2	23.8	1.1	1.1	3.2	4.6
하이록코리아	339.7	47.2	24,950	-3.3	1.4	14.4	18.2	13.1	11.5	1.1	1.0	8.5	9.0
성광밴드	285.4	14.3	9,980	2.6	2.8	-0.2	12.6	32.3	186	0.6	0.6	1.9	3.2
태광	282.2	16.6	10,650	-0.9	6.9	9.6	28.5	39.8	22.0	0.6	0.6	1.6	2.9
두산중공업	1,692.7	8.1	15,900	-0.6	-13.6	-12.2	-41.5	-63.5	103	0.6	0.5	-0.6	5.0
두산인프라코어	1,822.0	11.5	8,780	-1.0	-8.7	9.9	-0.5	9.1	8.0	0.9	0.8	9.7	10.6
두산엔진	351.7	5.0	5,060	0.8	27.0	27.1	54.0	36.2	35.8	0.7	0.6	1.8	1.8
한국항공우주산업	4,922.5	18.6	50,500	-1.4	-11.1	10.0	-24.6	-83.9	27.3	3.7	3.4	-4.2	12.7
한화테크윈	1,856.8	20.0	35,300	-1.1	-10.1	-9.9	-18.8	27.9	17.7	0.8	0.8	2.8	4.4
LIG넥스원	1,291.4	13.7	58,700	-1.2	-23.1	-25.4	-27.1	24.9	14.0	2.0	1.8	8.2	13.3
태웅	351.1	1.6	17,550	-2.2	-3.8	-11.8	-21.8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34.6	3.3	4,990	1.9	1.6	-6.9	-13.2	N/A	N/A	N/A	N/A	N/A	N/A
한국카본	249.7	16.2	5,680	-0.9	-2.7	-4.9	-6.1	19.1	257	0.8	0.8	4.1	3.0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중, Total사 LNG선 수주할 듯

오일메이저 Total이 용선할 LNG선 4척을 현대중공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러짐. Total은 용선 제공 선주 입찰에서 Sovcomflot과 TMS Carifff Ga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각각 1+1척씩 용선할 계획임. 용선될 LNG선은 17.4만 CBM급이며 Dual-Fuel 엔진이 장착되며, 인도는 2020년으로 알려짐. (선박뉴스)

프랑스 CMA CGM, LNG추진 매기 컨선 확보 속도

프랑스 총리는 'Maritime Conference 2017'에서 환경규제에 맞춰 LNG추진선이 LNG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LNG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것으로 밝힘. LNG추진선 도입에는 적당 건조비용이 최소 2천만달러 이상 증가하고, LNG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왔음. (EBN)

Shell scraps scrip dividend

오일메이저 Shell은 배당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250~300억달러의 현금 흐름이 유입될 것으로 발표함. 또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Shell은 세계적 수준의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벤영을 계획한다고 일러짐. Shell은 자산매각이 내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까지 평균 50억달러 이상 매각할 계획임. (Upstream)

성동조선 풍전등화…STX조선은 회생기회

문재인 정부의 첫 구조조정안이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 조선사와 철강사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임. 최근 RG를 발급받은 STX조선은 자력 구조조정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간 실사결과와 준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3배 이상 높다고 분석된 성동조선은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려짐. (매일경제)

AIDA Cruises to begin using LNG in Mediterranean ports

AIDA Cruises는 선대에 LNG추진 선박 비중을 늘리고, 지중해 특정 항구에서 LNG벙커링할 계획으로 알려짐. 현재 AIDA Cruises는 2018~22년 인도예정인 LNG추진 크루즈선 7척을 수주잔고로 보유함. 또 오일메이저 Shell의 LNG벙커링 Barge선을 통해 LNG를 공급받을 예정으로 알려짐. (TradeWinds)

Handysize LPG vessels set to suffer in 2018

컨설팅업체 Drewry에 따르면 Handysize급 LPG선은 공급과잉으로 2018년 최악의 해가 기대되는 반면, 1~5천CBM급 소형 LPG선은 적은 수주잔고와 폐선 증가로 최고의 해가 기대된다고 일러짐. 또 Handysize급 LPG선의 투자회수기간은 19년에 가까운 반면, 소형 LPG선은 8년으로 분석함. (TradeWinds)